



2.28 민주운동, 3.5 민주위거, 3.15 의거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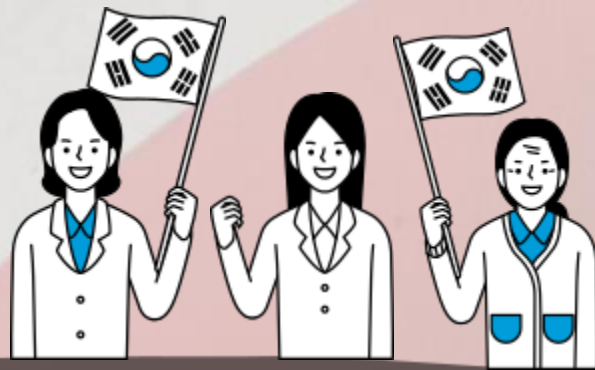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4.19 혁명의 도화선을 담다

MT조 보고서

대전, 대구, 창원
으로 다함께
떠나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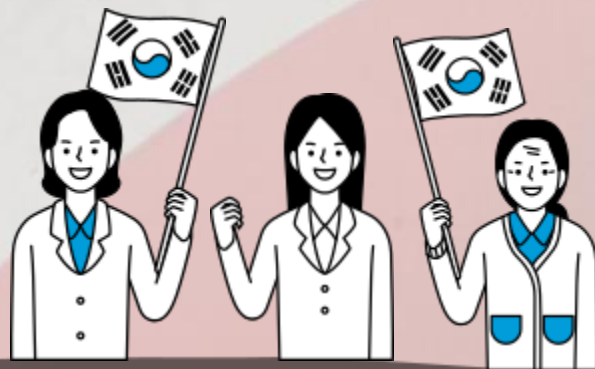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3p)
2. 탐방 요약 (4p)
3. 탐방지 소개 (5~11p)
4. 탐방 결과물 소개 (12~17p)
5. 탐방 후 느낀 점 (18~19p)



주제 선정 이유



1. 주제: 4.19 혁명의 배경이 되는 주요 민주화 운동
_2.28, 3.8, 3.15

2. 주제 선정 이유:

예비 사회과 교사로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사회과목표를 구현을 위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그래서 이를 담은 수업을 설계해보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

4-19 혁명(1960)의 전개

- 대구 2·28 민주 운동 | 2. 28.
- 부정 선거 발생 | 3. 15.
- 김주열 학생 사건 언론 보도 | 4. 11.
- 4·19 혁명 발발 | 4. 19.
- 대학 교수단 시위 | 4. 25.
- 이승만 대통령 하야 | 4. 26.
- 내각 책임제 개헌안 국회 통과 | 6. 15.
- 장면 내각 출범 | 8. 23.

02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선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자, 학생과 시민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 3·15 부정 선거

▲ 이승만 장기 독재를 제정한 민주당 선거 포스터



▲ 4·19 혁명 때 시위 발생지

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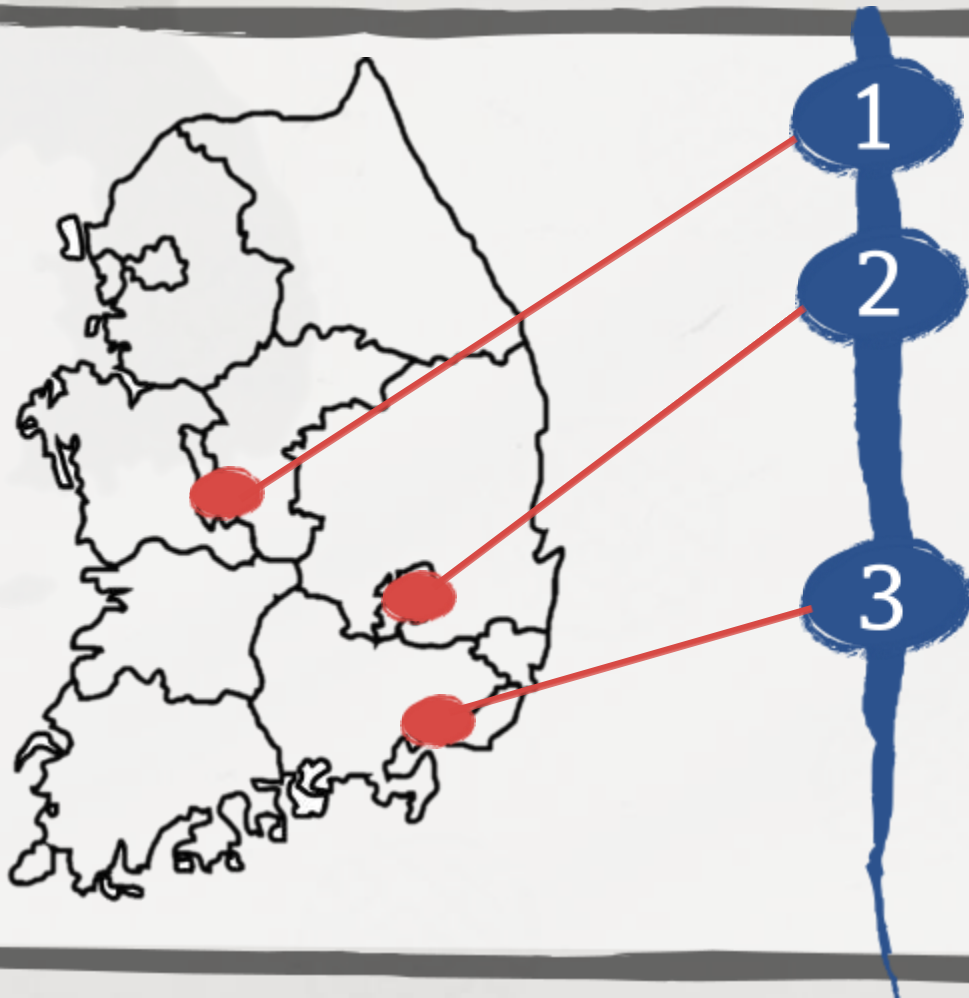
- 3. 15. 제3차 대통령, 제3차 부통령 선거 실시
- 4. 11. 김주열 학생 사건 일련으로 3대 국민 시위
- 4. 19. 4·19 혁명 발발
- 4. 25. 대학 교수단 시위
- 4. 26. 이승만 대통령 하야
- 4. 27. 장면 내각 출범



▲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MT팀 방문 타임라인(8.16~8.18)



1. 대전

- (1) 둔지미공원

2. 대구

- (1) 2.28 기념중앙공원
- (2) 민주운동기념회관
- (3)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탑

3. 마산(창원)

- (1) 용마고등학교
- (2) 오동동 문화광장
- (3) 3.15 의거 기념탑
- (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 (5)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



역사적 사건 타임라인: 대구

1

2.28
대구

2

3.8
대전

3

3.15
창원



(1) 2.28 기념중앙공원

2.28 학생민주의거를 기념하여 만든 공원으로, 공원부지는 예전에 대구 중앙 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김윤식 시인의 시비,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근처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역사성을 지닌 공원들이 있다.

(2) 민주운동기념회관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2.28 학생민주의거의 정신과 역사를 잘 보존하고자 만든 기념회관이다. 이 운동과 관련된 햇불지, 학술자료, 영상 자료가 있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2.28 민주운동 결의문과 함께 그날의 현장이 묘사되어 있다.

(3)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탑

민주 운동 결의문과 함께 1961년 유치환 시인이 작성한 민주운동기념탑 비문 까지 볼 수 있어, 당시 현장에 대한 묘사와 학생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김윤식 시인이 민주화운동을 보고 작성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과 2.28 찬가도 찬찬히 둘러보며 그날의 정취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1) 2.28 기념중앙공원



(2) 민주운동기념회관



(3)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탑





역사적 사건 타임라인: 대전

1

2.28
대구

2

3.8
대전

3

3.15
창원



(1) 둔지미공원

3.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이 세워진 곳이다.
196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맨손으로 독재 정권에 항거한 선구적 학생운동으로 대구의 2.28 학생민주의거, 마산의 3.15 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운동이다.

둔지미공원에 있는 기념탑 뒷면에는 3.8 민주화 운동 당시 이를 위해 김용재 시인이 적은 <증언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역사적 사건 타임라인: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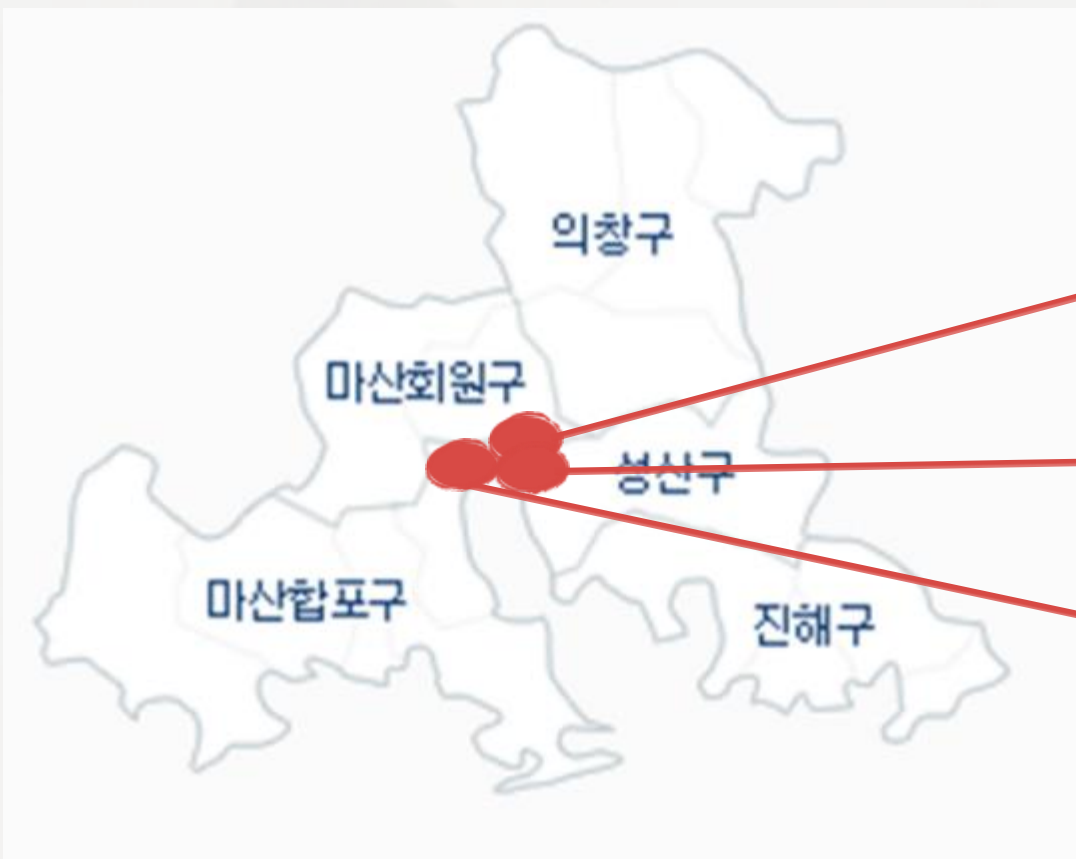
1

2.28 대구

2

3.8 대전

3

3.15
창원

※계획 변경 이유: 마산의료원은 현재 현대식건물밖에 남아있지 않아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용마고등학교로 대체하였다.

(1) 용마고등학교
3.15 의거 중 최루탄에 피살된
김주열 열사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 오동동 문화광장
1960년 3월 15일 시민들이 모여
투표권에 관해 열띤 주장을 펼친 현장이다.

(3) 3.15 의거 기념탑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 1차 의거,
4.11 2차 의거 중 가장 치열했던 투쟁 현장에
세워진 탑이다.

(1) 용마고등학교



(2) 오동동 문화광장



(3) 3.15 의거 기념탑





역사적 사건 타임라인: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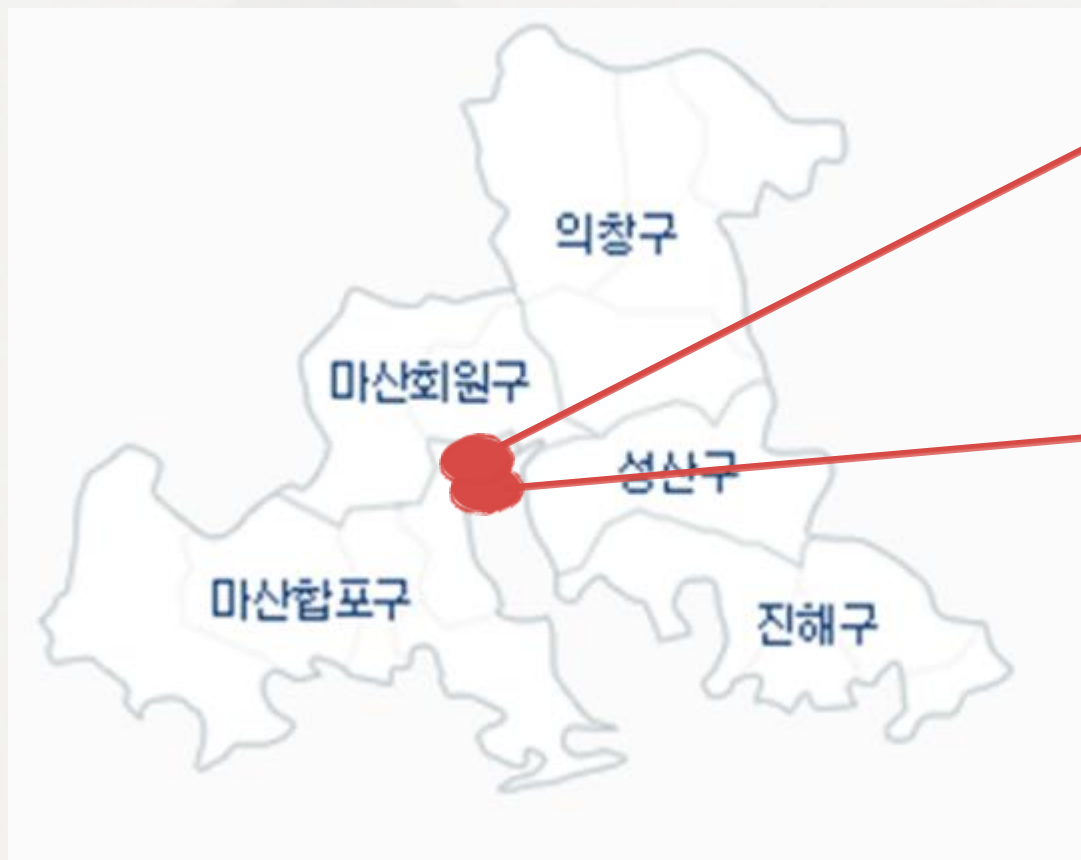
1

2.28 대구

2

3.8 대전

3

3.15
창원

(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3.15 의거 당일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던 곳이다.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들이 시청을 목표로 무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집결해 시청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실탄 사격을 가했다.

(5)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

김주열 열사가 마산 3.15 의거시위 중 행방불명 된 지 27일이 지난 4월 11일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이다. 경찰들이 3.15 의거 현장에서 쓰러진 시신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수장했던 것으로, 이에 대해 4.11 마산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이후 4.19 혁명이 이어졌다.

(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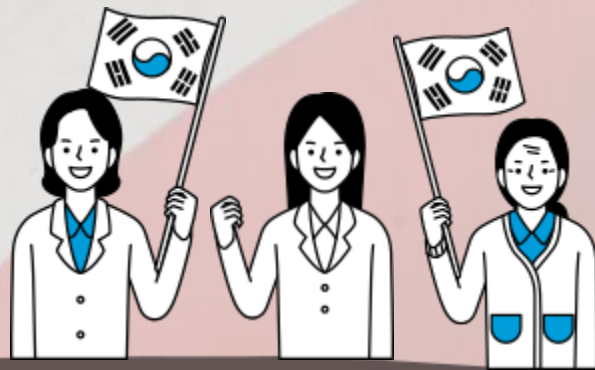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5)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





수업 관련 내용



1. 관련 교육과정

- (1) 중학교 역사2
- (2) 대단원 6단원 [근현대 사회의 전개] - 중단원 3단원 [민주주의의 발전]
- (3) 주제7. 독재에 대항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2. 성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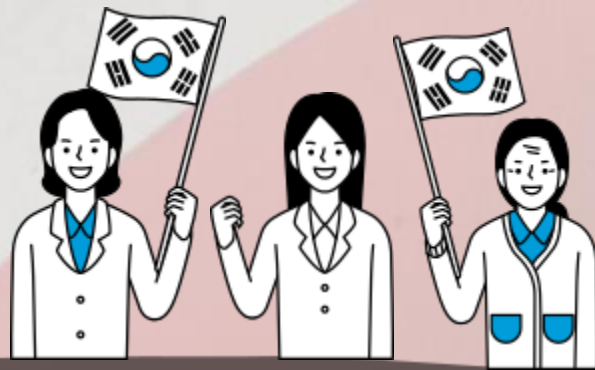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4.19 혁명 이전 민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3. 수업목표

- (1) 4.19 혁명 이전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2) 민주운동 열사들의 활동과 업적을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다.
- (3)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수업 활동



1. 도입: 2.28 기념중앙공원에 있던 노래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
2. 전개:
 - (1) 세 가지 민주화 운동 설명
 - (2) 일기를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활동 진행
[편지를 쓰는 주체가 당시의 민주열사들이라고 가정하여 작성]
3. 마무리: 전개 활동 결과물에 대한 감상 나누기



도입: 흥미유발



2·28 민주운동 찬가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제정
김정길 작사, 임우상 작곡

Moderato Maestoso

1. 달 구 빛 정 기 방 아 정 의 의 뜻 피 연 - 날
2. 비 들 산 부 른 기 살 화 늘 놀 이 처 웃 연 날

평화로운 의 안 - 의 나 민주 운동의 불 지 멸 내
독재의 사 불 지 멸 내 민주 운동의 불 지 멸 내

7

아 - - 아 아 - -
아 - - 아 - - 영원 희망 오 나 리
아 - - 아 - - 영원 희망 오 나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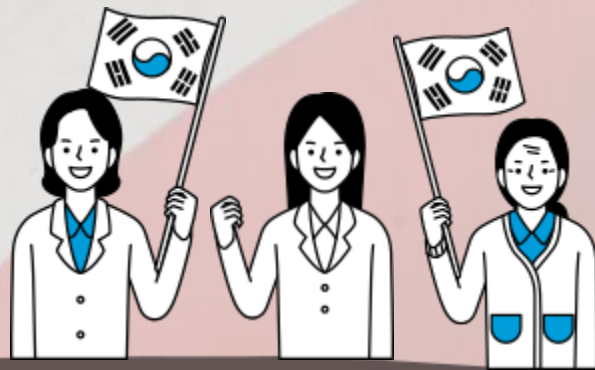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22
민 주 의 - 지 민 주 의 지 그 - 날 2. 2
민 주 승 - 리 민 주 승 리 의

24
8 그 - 날 2 2 8

좌측 악보지는
2.28 기념중앙공원에
적혀 있던 노래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전개: 각 사건 설명



1. 2.28 민주운동

: 2.28 민주운동은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구의 8개 공립 고등학교에 조기 중간고사, 영화관람 등을 명분으로 일요일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발단이다. 학생들은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여 부당한 일요일 등교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조직하고 결의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경북고 학생 대표 등이 학교 조회단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2.2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곧바로 시위에 합류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교내에서 단식농성을 하거나 담을 넘어 합류하였고, 시민들은 경찰에게 구타 당하는 학생들을 숨겨주는 등 시위대에 동조했다. 대구지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학생시위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2. 3.8 민주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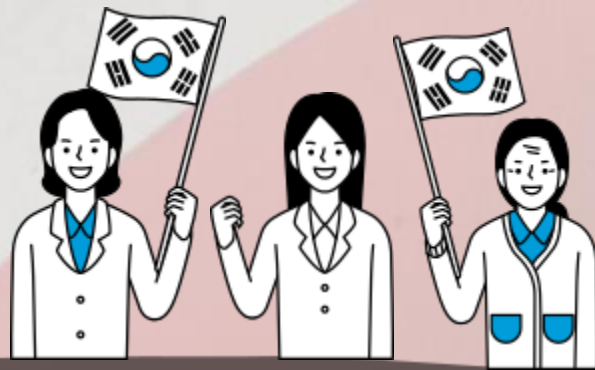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에 개최되는 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연설회와 때를 맞추어 저지하는 경찰들을 뚫고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재타도와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전개한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대전 시내 고교생들이 함께 연대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3월 9일과 10일에 연달아 보문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등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을 통합하여 3.8 민주의거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 운동이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3. 3.15 의거

: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장기집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이를 목격하고 알게 된 시민들과 학생들은 항거하여 싸웠다. 시위대들은 저녁에 개표가 시작되는 시청으로 모여 시위를 일으키자고 하였고, 이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총 만 여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는 이후 4.11 의거로 이어지며, 1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700여명이 체포 및 구금되어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전개: 오늘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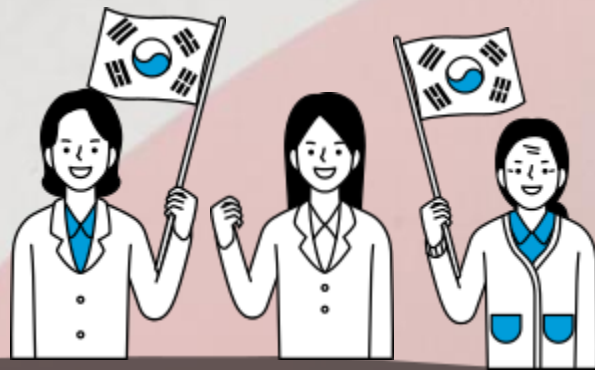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 모듬을 만들어서 함께 민주 운동 열사의 입장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보자 >

예시: 우리는 오늘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를 했어. 그 이유는 ~ 였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시위를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그를 잘 보존해주길 바라.





마무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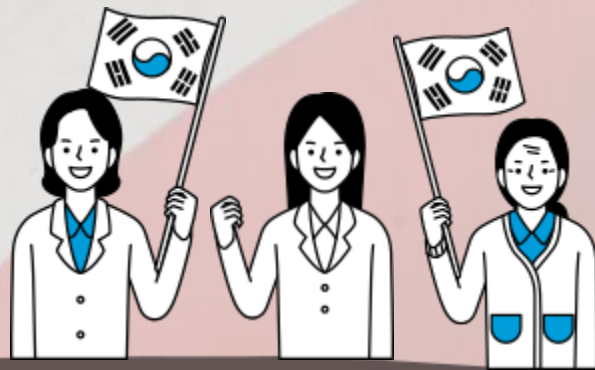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다른 모둠이 작성한 편지를 읽고 느낀 점을
민주열사에게 답장하는 형식으로 답글을 달아보자





탐방 후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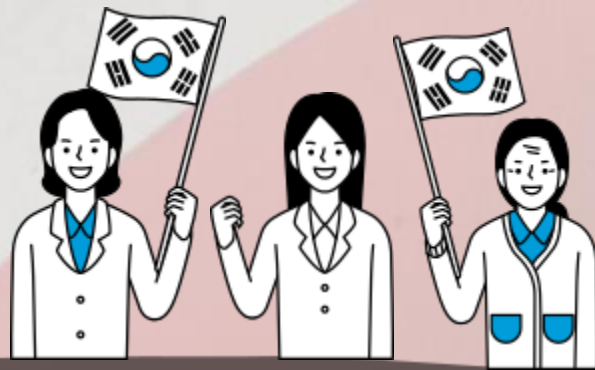


김나경: 교과서로만 배우고 사진으로만 접했던 현장에 직접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고 생각보다 역사적 현장들이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사진으로 역사 현장들을 봤을 때는 특별한 장소에 따로 현장을 보존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둔지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념탑 등이 미니 골프 코스도 한 칸에 마련되어있는 동네 공원에 위치해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와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장소들을 탐방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뜻깊었던 탐방이었다.

김나현: 책으로 배울 때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 예를 들어, 2.28 중앙공원과 같이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가 아예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여겨지고 있어, 프랜차이즈 지점 명에도 '2.28 공원점' 등으로 쓰일 만큼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역사적 사건이 역사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자잘하게 언급되며 끝없이 상기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 이었고, 책에서는 느낄 수 없던 차이점으로 다가왔다. 여행으로 방문하지 않았으면 느껴보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뜻 깊다.



탐방 후 느낀 점



김민지: 활자로만 보고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눈 앞에 보이니, 현장감과 결합되어 역사적 현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임'을 느낄 수 있었고, 주변의 현대적 건물들과 대비되면서 그러한 과거 덕분에 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몇몇 장소들이 제대로 보존되거나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다. 특히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근처에는 제대로 된 표지판도 존재하지 않았고, 추모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또한, 둔지미 공원에서는 3.8 민주주의거가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웠다.

임세아: 장소 조사를 하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방문하여 느끼는 것은 현장감이 더해져 감정이 배가 되었다. 특히, 마산의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은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쏜 흔적이 남은 장소인데 현재와는 다르게 폭력적인 진압 상황을 보여주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선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과 현재의 민주주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